

## 2020년 공연장 대관 공모 심의 총평

### ○ 일시 및 장소

- 1차 연극 : 2019. 12. 11(수) 11:00~13:30,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1차 무용 : 2019. 12. 13(금) 14:00~16:30,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2차 통합 : 2019. 12. 19(목) 14:00~16:30,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성혜, 박태희, 배선애, 송 전, 안지혜, 엄국천, 이의신, 정영순, 조형준

2020년도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 대상은 연극 81건, 무용 61건, 뮤지컬 10건, 기타 13건 등 165건의 공연작품들이었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장르별로 구분하여 세부 구분하여 이뤄졌다.

심의기준은 공지한 대로, 첫째,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작품의 우수성을 살펴보는 공연작품의 예술성, 둘째, 공연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셋째 관객 및 예술현장의 활성화에 해당하는 공연작품의 해당 분야 파급효과, 넷째, 단체의 역량과 실적을 검토하는 신청단체의 활동 실적 및 운영 역량 등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부터 운영하는 4개의 극장에 일정한 성격을 부여하여 지원단체들의 지원방향을 조절하였다. 즉 아르코예술극장은 축제나 경연사업 및 국제행사 등에 제공하고 이에 비해 대학로예술극장은 개인 및 단체의 공연활동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 공연단체의 경쟁의 형평성과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였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극장 운명 방식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정기대관 관련 심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1. 아르코예술극장은 공공적 가치를 지는 전국 단위의 협회 축제나 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축제나 경연행사가 단순반복형이 아닌, 새로운 주제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고 또 세부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주제와 합일된 방향성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객 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이 구상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심의 방안은 앞으로의 대관 신청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지원단체들이 고려해줄 것을 일치하여 요구했다.
2. 심사위원들은 신청 단체나 개인은 지원공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살펴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 공모 내용에 아르코예술극장은 “공연예술관련 축제, 경연사업 및 국제행사로 공모제한” 이라고 공지되어 있음에도 이 극장에 대해 개인 혹은 단체의 개별 작품 공연을 위한 대관 신청이 많았고, 이는 공모제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연장 안전을 위한 최소 대관일 신청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단체들도 있어 부적격 처리하였다. 완성도 높은 공연들이 부적격 처리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심사의 정확성을 위해 불

가피한 판단이었다.

3. 심사위원들은 대학로예술극장 대관의 경우 지원 신청한 작품의 예술성, 완성도, 지속적인 레퍼토리로서 관객들의 높은 호응도, 단체의 업적과 역량 등 심의기준에 맞춰 해당되는 공연단체에게 대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대관신청 단체들 중 초연작 공연을 위한 대관신청이 많았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이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공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판단했다.
4. 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대관 신청 기간이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작품과 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우수한 작품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관객과의 호흡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공연 단체가 우수 작품의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관객의 관심을 유인하여 자체적으로 공연의 시기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럴 경우 대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공연장이 마땅히 가져야할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연들에 대한 대관기회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공연과 장애인 참여 공연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했음도 밝히는 바이다.
6. 각 공연장의 대관 일자 심의 결과는 일단 확정적이나 공연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나 조정이 가능할 경우 대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연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추가 선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음을 밝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연장이 한정되어 있고, 각 공연장의 대관 일수도 한정되어 있어 여러 공연단체의 우수한 작품들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선정된 축제와 개별 작품들은 이 공연장 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우수한 작품들로, 공연장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아르코예술 극장의 경우 상당한 연륜을 가진 만큼 그 시설도 많이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다. 공연의 질적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공연과 관련한 장치, 시설 등도 고도화 되었으며 관객 수준 역시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이 시급함을 심사위원들 모두가 인지하였으며, 이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공연장 대관 심의위원 일동